

한국노인정신의학의 세계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오 병 훈

Globalization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Byoung Hoon Oh, M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was founded in 1994. "2004 IPA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was held successfully on 8-11 September in Seoul, Korea. KAGP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with the participation on th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IPA) Members. Now, it is the time to proceed rapid "globalization". "Globalization" should be approached to IPA mission and vision such as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older people everywhere through education, research, professional development, advocacy, health promotion and service development and increasing multi-disciplinary nature."

KEY WORDS : Korean geriatric psychiatry · Globalization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문제는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즉 globalization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 복지, 사회 전반에 걸친 노인 문제들 중에서 최근 노인 정신건강의 증진과 노인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정신의학의 학문적인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백만 명에 도달하였다. 고령사회(aged society)가 시작되는 2019년도에는 노인인구가 약 3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0년이 되면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백 8십만 명으로 최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사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세계화에 다가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1994년 창립된 후 빠른 성장을 보이며, 2004년 9월에는 대한노

인정신의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IPA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노인정신의학도 이제는 바야흐로 세계화에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선도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고령화 현상이 초래할 노인 주체성 확립, 핵가족, 부양비용과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비롯한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고, 이에 합당한 해결책을 궁극적으로 제시할 책임과 사명감 및 궁극적인 인류애가 한국노인정신의학의 세계화 추진방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세계 및 한국 노인정신의학의 발자취와 과제를 살펴보고, 특히 세계노인정신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통해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세계화를 향한 올바른 좌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세계 노인정신의학의 발자취

근대 노인정신의학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14년 Nascher는 『Geriatrics : The Disease of Old Age and their Treatment』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편찬하였으며, 노인정신의학의 초석을 이루었다. 2차 세계 대전 후 영국은 노인정신의학 영역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Felix Post는 1947년에 영국 Bethlem 병원에서 처음으로 노인정신과를 개설하였고 1950~1951년

접수일자 : 2004 10 1 / 심사완료 : 2004 11 20

Address for correspondence

Byoung Hoon Oh, M.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696 - 6 Tanbuldong, Gwangju 464 - 100, Korea

Tel : 031 - 797 - 5745, Fax : 031 - 763 - 5745

E - mail : drobh@chollian.net

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전용 병동을 발전시켰다. Post, Roth, Kay 및 Hopkins는 1950년대 입원했던 노인환자를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는데, 특히 Roth의 연구는 이전까지는 불명확했던 기질성장애와 기능성장애간의 구분을 좀더 분명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54년에 Duke대학에서 노화에 관한 종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Busse는 1965년에 Duke대학병원에 최초로 노인 정신의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였다. 1960년대 말 Henderson은 호주에서 노인정신연구부를 창설하였으며, 멜버른의 Edmund Chiu는 당시에만 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치매에 관한 연구를 지도하였다.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정신의학의 서비스와 교육이 널리 확산되는 시기였다.

미국에서는 1971년에 노인정신건강과 관련된 두 개의 기구가 설립되었는데 첫째가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이고 다른 하나가 National Institute on Aging(NIA)이다. 초대 회장인 Gene Cohen의 노력으로 NIMH는 급속히 활동분야를 넓혀 노인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임상 교육계획, 연구를 통괄하였다. 1978년 Sanford Finkel은 미국 노인 정신의학 분야의 지도자들 15명을 소집하여 노인정신의학에 관한 조직인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AAGP)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연례 모임을 가졌다. 1991년에는 미국 노인정신의학회(AAGP)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자격제도 시험도 실시되었다. 1995년에 미국 노인정신의학회(AAGP)는 1,3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영국에서는 1988년 런던의 Royal College of Physicians 주관으로 노인의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의사들에게 노인의학 전문가 시험을 처음 실시하였다. 의과대학생, 간호사, 기타 노인 건강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총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 노인정신과의사인 Tom Arie가 방대한 노인 정신의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Jean-Marie Leger교수가 노인정신과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노인정신과 실습을 하게 하였다. 캐나다에서는 1970년대에 캐나다 정신의학회 내에 노인에 관한 부서를 창설하였고 1981년 처음으로 노인의학 전문의 자격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983년에는 모든 의과대학의 정신과 수련에 노인정신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1991년에는 Sadavoy의 지도하에 'Canadian Academy of Geriatric Psychiatry'가 창립되었다.

1980년대는 노인정신의학에 관한 교과서 및 잡지들이 많이 발간된 시기였다. 1980년대에 노인정신의학 교과서로서 Birren과 Sloane에 의한 「The Handbook of Mental Health and Aging」, Busse와 Blazer에 의한 「A Handbook of Geriatric Psychiatry」가 출판되었다. 잡지로는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Inter-

national Psychogeriatrics」, 「Comprehensive Gerontology」, 「The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 등이 발간되었다. 1990년대는 노인정신의학 분야가 날로 번창해 가는 시기였다. 1990년 전반기엔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Geriatric Psychiatry」, 「Textbook of Geriatric Neuropsychiatry」, 「Principles and Practice of Geriatric Psychiatry」, 「Comprehensive Review of Geriatric Psychiatry」 등 중요한 교과서들과 노인정신의학 관련서적들이 발간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알츠하이머 병을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인식시키고, 치매 치료에 있어서 정신과적인 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알리며, 치매 요양시설에도 정신과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계몽하는 정책수립 등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폭넓은 발전이 있었다.

한편 노인정신의학의 국제적인 추진 세력으로 1980년도에 창립된 국제 노인정신의학회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IPA)을 들 수 있다. 현재 70개국 이상에서 1,500명 이상의 회원을 갖는 큰 학회로 "Multi-specialty, Interdisciplinary"를 추구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노인분야 관련 주요 단체로 가입하기도 하였다.¹⁾

한국 노인정신의학의 세계화 및 과제

한국노인정신의학의 세계화는 1991~1995년 태동기를 거쳐 1995~1999년에 이르는 중흥기에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은 한국노인정신의학의 교육과 학문적 발전에 있어서 세계화로 가는 해로 기록될 만한 한해였다. 광동일 초대 회장이 북경에서 열린 IPA-Joint Meeting에서 Scientific Committee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9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Asia Oceania Gerontology 학회에 오병훈, 조맹제 회원 등이 Scientific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전 IPA 회장이었던 K. Hasegawa교수의 특강, 당시의 IPA 회장이었던 Edmond Chiu 교수 초청의 "Arie Course Korea-1999" Workshop이 개최되었다. 또한 우종인 회원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IPA Board Member로 선출되었다. 2000~2004년은 활동적인 시기였다.

한국치매협회주관 국제학술 심포지움에 이어 "Arie Course Korea-2001"은 International Education Fund로 확대되어 개최되었다. 또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주관 국제학술 심포지움 및 2002년도 IPA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Hong Kong대회에서는 당시 이정호 이사장과 Helen Chiu 회장이 대한민국-홍콩 노인정신의학회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역량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Table 1. Summary of mission and visions for IPA (by George T. Grossberg, M.D., Ph.D, President of IPA)**IPA mission statement²⁾**

-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older people everywhere through education, research, professional development, advocacy, health promotion and service development."

Vision for IPA

- Increase multi-disciplinary nature of IPA
 - Currently, IPA is largely MD's, especially psychiatry
 - Need to increase membership from nursing, social work, psychology, pharmacy and therapists
- Grow membership
 - Especially in underserved/under represented parts of the world
 - Affiliate members-bundled
 - Electronic membership
- Bring IPA programming to underserved/emerging nations of world
 - Basic Advanced courses in psychogeriatrics in many languages
 - Use of internet-remote learning
 - Translate educational materials, e.g., BPSD
- A Focus on our website
 - www.ipa-online.org
 - Electronic membership
 - CME Programs
 - "Certification" Programs
 - Electronic "Bookstore"
- IPA as consultant
 - To Governments
 - Agencies worldwide dealing with aging/Mental Health
 - To serve as a think-tank using our "intellectual capital", e.g, consultant to FDA
- Restructuring the secretariat
 - Time of transition and growth
 - Strong business model for IPA
 - Selective outsourcing-meeting management, etc., to conserve funds
- Strengthening regional networks
 - Meetings in areas which need them the most
 - Bring professionals together under umbrella of IPA
 - Increasing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members via "Bundling"
- Growing our consensus conferences
 - Lewy body dementia
 - Agitation
 - Vascular burden of the brain
 - Antipsychotics in older dementia patients
 - Bipolar affective disorder in elderly
 - MCI
- Strengthening our publications
 - IPA bulletin
 -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Table 2. WHO promotes healthy ageing as a universal goal through an integrated life course perspective (by Dr. Linda L. Milan, WHO)

Active ageing : Active ageing is the process of optimiz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Strategy for mental health

- Advocacy
- Service provision
- Mental health promotion
- Policy and legislation
-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a research culture and capacity
- Suicide prevention

How to improve mental health services

- Include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 Recognize special needs of the elderly
- Recognize barriers that hinder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the elderly
- Be integrated into health services and other social services

The way forward

- As a growing political force, older persons can demand that mental health needs be met as part of good governance
- With advances in telecommunications, programmes to improve access of older persons may increase connectedness and social integration
- As a growing commercial market, the private sector can be encouraged to address the unique needs of older persons through new products and services

활동에 힘입어 서국희 회원이 IPA의 Board Member로 오병훈 회원이 ICGP(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의 Executive Member로 선출되었다. 또한 김재민 회원은 ICGP Annual Meeting에서 젊은 연구가에게 주는 상을 수상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정신의학의 수준을 알리는 계기를 주었다. 특히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금년 2004년은 뜻깊은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2004 Hong Kong, Japan, Korea 노인정신의학회 합동학술대회와 박종한 위원장과 연병길 공동위원장이 이끈 2004 IPA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Seoul은 "Seoul Declaration on Mental Health for the Elderly in Korea"까지 이끌어낸 IPA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로 남게 될 작품을 전 회원의 노력으로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각 나라에서 최대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IPA Board Member를 한국은 서국희, 오병훈 회원이 보유함으로써 미국, 영국, 호주, 일본에 이어 이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노인정신 의학을 선두에서 이끌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IPA에서는 우종인 회원이 IPA Bulletin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IPA Bulletin에 활발히 게재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의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뜻깊은 선배들의 철학과 신념에서 세계화의 전략을 갖고 세

계노인정신의 흐름에 후발주자로 견실하게 출발했으며, 그동안의 과감한 투자와 노력에 힘입어 현재 임상, 교육 연구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계화에 진입하였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즉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키워 국제적인 연구, 교육에 동참하고 나아가 주도하는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 노인정신의학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연구자들과의 폭넓은 교류는 물론 인접분야 및 노인정책관계자들과의 인적 network 구성에도 지속적인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현 IPA 회장에 제시한 미션과 비전 (Table 1)과 WHO에서 제시한 건강한 노년기(Table 2)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연병길 이사장, 정인과 차기이사장을 비롯한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전 회원들이 2013년에 유치될 세계노년학학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이다.¹⁾

결 론

이상에서 세계 및 한국 노인정신의학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한국노인정신의학의 세계화로의 과제를 IPA mission 및 vis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 건강 증진은 물론 노인 정신의학의 발전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지만 향후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들이 많음을 보았다. 실제로는 현재 세계노인정신의학회 회장인 “Dr. George T Grossberg” 및 WHO의 Dr. Milan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무엇보다도 잘 예측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노인들의 정신 건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 및 다양한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 등의 내실화에도 힘써야 될 것이다.

아울러 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성공적인 노화의 model 개발 및 보급에 가장 선도적인 세계화 작업에 중추적,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노인정신의학의 세계화는 노인정신의학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과업이며 하는 새로운 영역의 창조적인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중심 단어 : 한국노인정신의학 · 세계화.

REFERENCES

- 1) 이정호. 한국 노인정신의학의 역사. 노인정신의학 2004;8:15-9.
- 2) Final Program and Abstract Book. 2004 IPA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in Rapidly Aging Society” Seoul, Korea, 8-11 September, 2004.